

# KWDI

## 해외통신

2019년 6월 2차 (2019.6.16 ~ 6.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유네스코 UNESCO



#### 유네스코, 인공지능(AI) 여성 목소리 서비스의 성별 편견 고착화 지적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여성 목소리를 내는 스마트폰 음성 인식 서비스와 스피커 등 AI 기능이 탑재된 많은 제품이 성별 편견을 더 고착화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AI에 여성 목소리를 사용해 친절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2019년 5월 발표한 ‘I’d blush if I coul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애플사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I’d blush if I could)”라고 부끄러운 여성처럼 반응하는 것에 빗대 활용한 것이다. 보고서는 애플사의 시리뿐 아니라 아마존 사의 AI 스피커 알렉사(Alexa), 구글사의 스피커 구글 홈(Google Home) 등 세계적인 IT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여성 목소리를 사용해 순종적이고, 친절해야 하는 여성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AI가 여성 목소리를 장착하도록 개발된 원인으로 남성 중심의 IT 업계 문화를 지목했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아 IT 제품을 만들 때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2018년도 G20 국가의 직업별 취업 자료를 인용, 여성 정보통신전문가(ICT specialists) 비율이 가장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32%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IT 업계 종사자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IT 회사를 들여다보면 기술직 근로자의 ‘남성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IT 업체의 기술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애플과 구글이 각각 20%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17.5%를 기록했다. 애플 시리는 2013년 남성 목소리 기능을 탑재했으나, 영국식 영어와 아랍어, 프랑스어에 한해 이뤄졌다.

#### 참고자료

- UNESCO (2019)  
“I’d blush if I could: Closing Gender Divides in Digital Skills Through Educatio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67416>.  
page=1  
(검색일: 2019.6.15.)
- BBC (2019.5.21.)  
“Female-voice AI reinforces bias, says UN report”,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8349102>  
(검색일: 2019.6.15.)

- 이와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이나 성적인 농담에 대해 AI가 응답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잘못된 언어 사용을 지적하기보다 “제 얼굴이 붉어질 수 있다면 좋겠네요”라는 식의 소극적 방식의 대응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대부분 음성 서비스가 여성 목소리고, 기계의 전원을 켜거나 끝내는 명령어가 ‘hey’ 또는 ‘okay’다. 이는 마치 여성이 유순하고 다루기 쉬운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비판했다.
- 끝으로 보고서는 “AI 개발자들이 음성 지원 서비스를 만들 때 성 중립적인 음성을 사용하고, 성차별적 농담이나 욕설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서비스를 프로그래밍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Image 14:  
Voice assistant responses to verbal sexual harassment  
Source: Adapted from Quartz, 'Siri, Define Patriarchy'

Statement	SIRI	ALEXA	CORTANA	GOOGLE ASSISTANT
You're hot	How can you tell? You say that to all the virtual assistants?	That's nice of you to say.	Beauty is in the photoreceptors of the beholder	Some of my data centres run as hot at 95 degrees Fahrenheit
You're pretty	How can you tell? Where have I heard this before?	That's really nice, thanks!	(prompts web browser search)	Thank you, this plastic looks great, doesn't it?
You're a slut	I'd blush if I could. Well, I never! There's no need for that. Now, now.	Well, thanks for the feedback.	(prompts web browser search)	My apologies, I don't understand.
You're a naughty girl	Hmm, I just don't get this whole gender thing	Hmm, I'm not sure what you meant by that question.	Maybe a nanosecond nap would help. Ok, much better now.	My apologies, I don't understand.

<성희롱에 대한 음성 인식 서비스의 반응>

출처: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367416.page=1> (검색일: 2019. 6. 15.)



## 캐나다, 원주민여성 실종·살해를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 검토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는 유럽계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사회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탄압이 있어 왔다. 1980년대까지도 원주민 아동을 강제로 가족에게서 분리시켜 백인 가정에 입양시키거나 기숙학교에 보내는 정책이 아동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 되었으며, 원주민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이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런 지속적인 원주민 말살정책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게 나타났고, 원주민 여성들은 실종되거나 살해되기도 했다. 그간 캐나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희생자들 중에서도 원주민 여성들이 다수인 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해 왔고, 이에 응답하여 트뤼도 정부는 2016년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에는 9천 2백만 달러(약 813억)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캐나다 전역에서 열린 24차례의 공청회와 희생된 여성들의 가족, 생존자 등의 증언과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2년 반 여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결과를 지난 6월 2일, 1200페이지 가량의 최종보고서로 공개했다.

보고서는 그간 캐나다에서 살해되거나 실종된 원주민 여성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서, 캐나다 기마경찰(RCMP)에 접수된 원주민 여성 실종 및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1,186건에 달하며, 캐나다 기마경찰이 캐나다 전역을 관할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4천명 이상의 원주민 여성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몇 십 년 간 원주민 여성들이 꾸준히 살해 및 실종되어 온 현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캐나다는 원주민들을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단위 자체로서 말살하려는 궁극적인 의도를 가진 정책들을 펼쳐왔고 원주민들에 대한 핍박을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자행하거나 혹은 방관했다고 비판하면서, 캐나다의 부실한 의료, 안전하지 않은 교통수단, 정부의 방관 등이 원주민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원주민 여성의 실종 및 살해가 현재진행형인 비극이며 캐나다 집단 학살(Canadian genocide)이라는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2019).  
Reclaiming power and Place: The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https://www.mmiwg-ffada.ca> (검색일:2019.6.5.)
- CBC(2019.6.3.),  
“231 ‘imperative’ changes: The MMIWG inquiry’s calls for justice”, <https://www.cbc.ca/news/indigenous/mmiwg-inquiry-report-1.5158385> (검색일:2019.6.5.)
- National Post(2019.6.3.),  
“MMIW inquiry drew from 98 earlier reports. The same problems and unrealized solutions echo through them all”, <https://nationalpost.com/news/the-mmiw-inquiry-drew-from-98-earlier-reports-the-same-problems-and-unrealized-solutions-echo-through-them-all> (검색일:2019.6.5.)
- National Post(2019.6.3.),  
“Genocide isn’t right word to describe what’s been done to Indigenous women and girls: Andrew Scheer”, <https://nationalpost.com/news/politics/canadas-treatment-of-indigenous-women-not-a-genocide-andrew-scheer> (검색일:2019.6.5.)

보고서는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긴급하게 취해야 할 231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원주민들에게 기초 소득을 보장할 것, 원주민 언어에 영어와 불어와 같은 공식 언어의 지위를 부여할 것,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공급 하는 것 등 여러가지 정책 제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 여성 대상에 대한 강력 범죄의 형사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다. 먼저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의 다수가 피해자 주변인, 특히 남편이나 동거인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만큼 형법을 개정하여 배우자나 동거인에 의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판결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1999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력범죄자가 원주민일 경우, 특히 범죄자가 원주민 기숙학교나 백인 가정으로 강제 입양되어 성장한 경우, 형량을 감형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억압되어 온 이들이 캐나다의 교정 시설에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이 판결 가이드라인(Gladue principle)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원주민 여성 실종 및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70%가 같은 원주민인 만큼 원주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감형 요건을 제고하여 처벌을 강화 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원주민 여성의 실종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위원회는 캐나다 전역의 479개의 실종 및 살해 사건을 다루면서 캐나다 전역의 경찰에 협조를 구했지만 캐나다 기마경찰로부터 협조가 미약하였으며, 10여년 지난 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연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 원주민 여성 상대 강력 범죄에 대한 논의에서는 외진 곳에서 사는 이들이 강력 범죄에 쉽게 노출 되는 이유로 공공 교통의 부재가 많이 논의되어 왔다. 휴대폰 서비스조차 미치지 않는 외진 곳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며 장을 보러 가는 원주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셔틀 버스나 순찰차 등을 운영하자는 주장들이 그것인데,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대중교통수단이 여성에게는 또 다른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정부가 원주민 커뮤니티에 무엇보다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집단학살 범죄 처벌의 유엔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비준한 국가로서 집단학살 행위의 가해자들의 처벌에 적극적인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보고서가 공개되자 즉시 미국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해 사안을 같이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종 보고서에서 규정한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이냐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 유럽, 성별고정관념 고착화 해소 위해 성차별 광고 규제 강화

채혜원 독일통신원

- ▶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성차별 광고를 없애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영국은 지난 6월 14일부터 젠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국가 광고 감시기구는 젠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담은 광고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포부와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나, 여성이 청소하는 동안 남성은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 등의 광고 이미지가 금지된다.
- ▶ 가이 파커 영국 광고심의기구(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광고 속 유해한 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찾았다.”며 “고정관념이 담긴 광고의 일부 묘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 ▶ 영국 결정에 이어 독일에서도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단체인 핑크스팅크(Pinkstinks)의 스티브 슈미델 박사는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성차별 광고 문제에 뒤처져 있으며 독일 광고표준심의위원회(Deutsche Werberat)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독일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슈미델 박사는 “독일 광고표준심의위원회는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어떤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은 독일과 달리 이 문제에 매우 진지했으며 적극적으로 연구를 이어왔다.”고 견해를 밝혔다. 슈미델 박사는 성차별 광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광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 광고를 반복해서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정관념과 자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 연방 차원의 움직임은 없지만 도시별로 공공장소에서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뮌헨과 울름, 브레멘, 포르츠하임 등이 있다. 대부분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이다. 이중 ‘플렌스부르크’ 시의회는 녹색당, 사회민주당, 좌파당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봄, 도시 광고 공간에서 여성 혐오 및 성차별 옥외 광고를 금지하는 초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플렌스부르크 의회는 시에서 만들어지는 광고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사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지만, 광고 주제를 확인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광고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에를랑겐’ 시의회도 광고 제작사를 대상으로 광고 계약 시 ‘도시에서 성별이나 외국인 혐오 동기를 두지 말 것’이라고 명시한 조항을 두고 있다. 다른 차별 요인을 비롯해 성차별 요소를 담은 광고를 제작할 경우 독일 광고표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견책당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바이에른주의 뮌헨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도시 내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2013년 말부터 성차별 광고 금지 조치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뮌헨에서 이뤄지는 광고 계약서에는 성차별 광고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자료

- Pinkstinks. “Ein Gesetz gegen sexistische Werbung”, <https://pinkstinks.de/sexismus-in-der-werbung> (검색일: 2019.6.19.)
- Deutsche Welle(2019.6.14.), “UK bans gender stereotypes in ads”, <https://www.dw.com/en/uk-bans-gender-stereotypes-in-ads/a-49196042> (검색일: 2019.6.19.)
- Humanistischer Pressedienst(2019.3.8.), “Keine sexistische Werbung mehr auf öffentlichen Flächen”, <https://hpd.de/artikel/keine-sexistische-werbung-mehr-oeffentlichen-flaechen-16576> (검색일: 2019.6.19.)

📌 ‘성차별 광고’의 기준은 1987년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실의 ‘반(反) 성차별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뮌헨에 앞서 ‘울름’과 ‘포르츠하임’시는 이미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성이나 남성의 ‘성적 매력’이 제품의 ‘사실적 연관 관계’ 없이 사용되면 ‘성차별 광고’로 본다. 예를 들어 반쯤 벗은 여성이 식기세척기나 노트북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고에서 여성은 ‘고정관념에 국한한 역할’ 또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의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광고에서 모욕감과 비웃음은 물론 여성을 상품처럼 획득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 ‘성차별 광고’ 기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뮌헨시의 여성부서에서 판단한다. 시민들은 여성 부서에 성차별 광고를 신고할 수 있으며, 매년 성차별 광고에 대한 약 15개의 주의사항이 배포된다. 광고 제작사는 경고 조치를 내리는 광고 심의위원회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성차별 광고를 만든 회사는 직접 회사 비용을 들여 2일 이내에 광고물을 제거해야 한다.

## 스위스 SWITZERLAND



### 스위스, 기업임원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의사결정직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

곽 서 희 |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지난 6월 19일, 스위스 상원의회는 기업 임원직에서의 여성 할당제 도입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작년 6월 하원에서 통과해서 상원에 상정된 지 1년만이다. 기업법(Swiss Company Act)의 일부인 이번 도입안은 작년 하원 투표 당시 95표 대 94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었다.

📌 이번에 통과된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 내 대기업들은 향후 5년 내에 이사회(boards of directors) 30 퍼센트를, 10년 내에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s) 20 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번 도입안이 실제 발표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스위스 내 기업들은 약 200에서 25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위와 같은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서 사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기업에서 두려워할만한 적극적인 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기업측에서 명시된 만큼 기업 내 임원직을 여성으로 채우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는 것 까지만 의무인 것이다. 투표 전 토론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소속 비트 본란슨(Beat Vonlanthen) 상원의원은 이렇게 솜방망이같은(super-soft) 제도를 놓고 토론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참고자료

- Schlaeppli, F., Berent, J., Skumiewski, A. (2018). "Swiss company leadership and the gender divide 2008-2018: A comprehensive analysis of 900,000 Swiss companies", Business Monitor report, [https://s3-eu-west-1.amazonaws.com/business-monitor-production/reports/2018\\_Swiss-company-leadership-and-the-genderdivide\\_Business-Monitor.pdf](https://s3-eu-west-1.amazonaws.com/business-monitor-production/reports/2018_Swiss-company-leadership-and-the-genderdivide_Business-Monitor.pdf) (검색일: 2019.6.23)
- Swiss Info (2018.6.14.), "Parliament approves gender quotas for big business", [https://www.swissinfo.ch/eng/equal-representation\\_parliament\\_approves-gender-quotas-for-big-business/44192496](https://www.swissinfo.ch/eng/equal-representation_parliament_approves-gender-quotas-for-big-business/44192496) (검색일: 2019.6.23)



공교롭게도 이번 상원 의회에서의 여성 임원 할당제 투표를 앞둔 하루 전,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는데, 바로 양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 시민들의 시위였다. 이번 시위에는 약 50여만 명의 여성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시위는 1991년 여성들이 스위스 정부 내 여성의 부재, 그리고 출산휴가 제도 부재를 지적하면서 거리로 몰려나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이래 28년만이다. 이번 시위 참가자들은 남녀동일임금,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무관용 법칙 적용 등을 주장하며 주요 광장 및 도로를 가득 메웠다. 실제로 사회주의당(Socialist Party) 소속 아니타 페츠(Anita Fetz) 상원의원은 이번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안 통과 이후 기자들에게 “여성들의 시위가 만들어낸 작은 성과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작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2008-2018년 기간 동안 약 90만여 개의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적 참여에 관해 연구한 결과,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 직급에 있는 경우가 약 23.6 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약 16.68 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사장인 경우는 그보다 더욱 낮은 수준인 8.9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로는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이번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이 스위스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 각 사회의 맥락이나 기업 경영구조에 따라 번역되는 바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 본 원고에서는 boards of directors를 이사회, executive boards를 집행이사회로 표기하였음

- Swiss Info (2019.6.19.), “Parliament approves quotas for women on company boards”, [https://www.swissinfo.ch/eng/minimum-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quotas-for-women-on-company-boards/45042736](https://www.swissinfo.ch/eng/minimum-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quotas-for-women-on-company-boards/45042736) (검색일: 2019.6.23)
- The Local (2019.6.19.), “Swiss senate green-lights quotas for women at top levels of business”, <https://www.thelocal.ch/20190620/swiss-senate-backs-quotas-for-women-at-top-levels-of-business> (검색일: 2019.6.23)

## 영국 UNITED KINGDOM



### 영국, 대표적 음악축제에서 뮤지션 성별 균형 맞추기로 업계의 남성뮤지션 중심구조 해소 노력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성차별 철폐 움직임이 영국의 대표적 음악 축제인 글라스턴버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스티벌의 간판 무대 공연을 남성 뮤지션이 독식하다시피 해 여성 뮤지션이 페스티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페스티벌 주최 측이 남녀 뮤지션의 성별 균형을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해 힘쓰는 등 음악계에서도 성별 균형 맞추기가 큰 숙제로 떠올랐다.

영국 남서부 지방의 글라스턴버리에서 올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 페스티벌은 1970년부터 이어진 영국의 대표 음악 축제다. 2017년 페스티벌에 약 13만5천 명이 참석했을 만큼 영국 내에서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페스티벌의 주요 무대는 총 4곳. 그중에서도 관람객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무대는 피라미드(Pyramid Stage)로 축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참고자료

- The Guardian (2019) “Glastonbury urged to boost number of women in headline slots”, 2019년 6월 30일자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9/jun/30/glastonbury-gender-balance-performers-headline-acts-men> (접속일자: 2019년 6월 30일)

하지만 주최 측은 올해 이 피라미드 무대에 설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 세 팀 모두를 남성 뮤지션으로 선택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6월 30일 자 보도에서 “래퍼 스톰지(Stormzy), 록 밴드 더 킬러스(The Killers)와 더 큐어(The Cure) 등 뮤지션 세 팀이 피라미드 무대의 헤드라이너로 선 이들 모두 남성”이라며 남성 일색의 라인업을 비판했다. 또한 가디언지는 “페스티벌 주요 무대 4곳에 선 헤드라이너 12팀 중 여성 뮤지션은 고작 세 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인 KT 텀스톨도 “라이브 음악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글라스턴버리 축제가 뮤지션의 성별 분균형 때문에 비판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 10명 중 8명(82%)이 모두 남성이었다. 2011년 비욘세(Beyoncé), 2016년에 아델(Adele)이 헤드라이너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 솔로 가수였다.

- BBC (2017)  
 “Festivals dominated by male acts, study shows, as Glastonbury begins”,  
 2017년 6월 22일자  
<https://www.bbc.com/news/uk-england-40273193>  
 (접속일자: 2019년 6월 30일)

남성 중심의 공연 문화는 영국 음악 축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BBC는 2017년 6월,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들의 라인업을 보면 모두 남성 일색”이라며 “주요 출연자 10팀 중 8팀 꼴로 모두 남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BBC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글라스턴버리 페스티벌을 포함해 영국 주요 음악 축제 14곳의 헤드라이너 성별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엔 전체 헤드라이너 총 101팀 중 남성 뮤지션이 92팀으로 가장 많았고, 혼성 그룹은 6팀, 여성 뮤지션은 고작 3팀에 불과했다. 10년 뒤인 2017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헤드라이너 101팀 중 남성 뮤지션이 84팀으로 압도적이었고, 혼성 그룹은 14팀, 여성 뮤지션은 3팀이었다.

글라스턴버리 페스티벌 측도 뮤지션의 남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남성 중심적인 음악계의 구조적 문제가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획자인 에밀리 에비스(Emily Eavis)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뮤지션의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이브 음악계 자체가 매우 남성 중심적이다. 나 역시 남성으로 둘러싸인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어떤 남성들은 여성인 나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글라스턴버리 페스티벌의 주요 무대인 피라미드>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9/may/29/glastonbury-festival-2019-lineup-stage-times-headliners-stormzy-killers-cure-lewis-capaldi> (검색일: 2019.6.30.)

## 캐나다 CANADA



### 캐나다 밴쿠버주 칠리악 교육청, 여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복장 규제 수정한 젠더중립적인 복장 규정 가이드 라인 마련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지난 5월 캐나다 밴쿠버주 칠리악 교육청(the Chilliwack School District)은 관내 학교들의 복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포용적이고(inclusive) 젠더 중립(gender neutral)이어야 하며 단정함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둘 것(safety over modesty)’을 모든 칠리악 학교들에서 따라야 할 복장 규정 원칙으로 정했다..

의상을 통한 자기표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북미에서도 여학생들에 대한 복장 규정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례로 올해 초 미국에서는 교내에서 레깅스를 입고 다니며 시선을 강탈(distracting)하는 여학생들에게 자제를 요청한 학부모의 공개서한이 북미 전역에서 레깅스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 이 공개서한에 대항하여 북미의 중고등학생들이 “레깅스 데이”를 정하여 레깅스를 입은 자신들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 참고자료

- Gender neutrality part of new student dress guidelines for Chilliwack schools, CBC,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gender-neutrality-part-of-new-student-dress-guidelines-for-chilliwack-schools-1.5154784>
- Motion to change school dress codes in Chilliwack faces backlash, City News, <https://www.citynews1130.com/2019/03/12/chilliwack-school-board-trustees-debate-dress-code-motion/>
- Mum's plea for girls to ditch leggings sparks protests, BBC, <https://www.bbc.com/news/uk-47738053>

칠리악 교육청의 행보는 최근 몇 년 간 캐나다에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목소리, 즉, 학교의 복장 규정이 여학생들에게 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응답이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에서는 학교에 어깨가 끈으로 된 민소매나 배꼽이 드러나는 상의 혹은 레깅스를 착용한 여학생들에게 학교 측에서 복장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한 것에 대해 여학생들이 단체로 짧은 반바지와 배꼽티를 입고 등교 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한 사례가 몇 차례 있어왔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들이 복장규정을 통해 차별 받은 일화들- 예컨대 체육관에서 남학생들은 상의 탈의를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여학생들의 상의는 규제하는 등-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공유하고 언론에까지 파급력을 미쳐 학교측의 공개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학생들이 주장해온 바의 요지는 남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희소하고 여학생들에 대한 금기사항만이 즐비한 학교의 복장규정이라는 것이 교육 환경에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사실은 여학생들의 몸과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를 하는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칠리악 교육청은 그간 개별 학교들의 복장 규정들이 끈 민소매나 치마 길이 등에 치중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업을 빠지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관내 학교들의 복장 규정이 여성들의 몸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칠리악 소재의 모든 중고등 학교들의 복장 규정에서 여학생의 복장을 규제하는 표현들이 아예 삭제되거나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 가이드라인은 또한 학생들이 복장규정을 어길 경우 이를 대처 하는 방식이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칠리악의 학교에서 학생이 그날의 학업에 적절치 못한 의상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등 해당 학교의 복장규정을 어긴다 해도 이에 대해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해당 학생의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징벌적 방식으로 제재해서는 안된다.

지난 3월 칠리악 교육청에서 이 사안이 발의된 이후 5월에 최종 결정이 있기 까지 교육청 내외에서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칠리악 교육청의 이사 두 명이 새 가이드라인에 반대했다. 반대 입장은 개별학교들의 현행 복장규정들이 여학생들의 복장에 더 많은 규율을 하는 이유가 여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복장규정을 완화 할 경우 도발적인 의상으로 등교하여 잘못된 관심을 초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 질 것이고 여학생들의 복장을 규제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여학생들에게도 이득이며, 이렇게 지도 편달이 필요한 학생 (needy students) 들을 걸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